



냉동창고 안 전시만으로도 색다른데 만지고… 들춰보고… 심지어 먹기까지

15일까지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 느티나무숲 '배추와 고등어'전

예술이 항상 고상한 것만은 아니다. 남성용 변기와 마르셀 뒤샹을 만나 그 유명한 작품 '샘'으로 탄생했듯, 뜻밖의 작품 소재와 전시 장소가 아름다운 유통을 전해주기도 한다.

2010 대인예술시장프로젝트 '느티나무숲'이 주최한 '배추와 고등어'(오는 15일까지)전이 열린 9일 오후, 광주 대인시장 내 냉동창고

안, 여느 전시와는 다르게 관람객들이 출품작을 만지고, 들춰보고, 심지어 먹기까지 했다.

시장에서 파는 뱀튀기, 배추, 당근, 꿀을 소재로 작품을 만들었고 관람객들이 100~4000원을 주고 사먹을 수도 있다.

작품을 만지거나 음식물을 가져와 먹을 수 없는 딱딱한 전시 분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관람객들

은 작품을 둘러보면서 "이런 것도 작품이 되는구나"며 즐거워했다.

전시 장소 자체가 특이하기도 했다. 생선을 보관하던 냉동창고는 예술의 엄격함을 벗어 면지기에 충분 했고, 그만큼 출품작들의 소재와 기법도 자유로웠다.

대인시장 곳곳에 널브러져 있는 모든 것이 작품 소재가 됐고, 아예 전시장 자체를 작은 시장통으로

꾸몄다.

이번 전시에는 고재근, 김경자, 김단화, 김성우, 김탁현, 박문준, 박성완, 도도공방, 신양호, 신호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무, 윤남웅 씨 등 대인시장에서 작업하고 있는 작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신양호씨는 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갈치를 나무판자에 그려넣었고, 윤남웅씨는 명태, 노가리를 예복시수자로 코팅했다. 이들 작품은 시장에서 열리는 전시인 만큼, 시장의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대인시장 냉동창고에서 열린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신기한 듯 작품을 지켜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

김성우씨는 인근 젓갈집, 나물집에서 파는 빨랫비누를 모아 선보이고 있다. 젓갈, 나물, 건어물 등 각 상점의 주 판매상품은 아니지만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비누를 만들어 파는 상인들의 고단한 삶이 묻어 있다.

또 고재근씨는 대인시장에 있는 4개의 점포에서 구입한 이불에 그림을 그렸다. 이 작품은 시장 상인들의 무릎을 따뜻하게 덮어주던 이불의 포근함을 준해준다.

이 밖에 김경자씨는 옛날TV 3대에 대인시장 곳곳의 풍경과 상인들의 지난 이야기를 담은 영상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전시를 기획한 강보선 매니저는 "대인시장의 낡은 물건들이 작가의 손을 거쳐 화려한 작품으로 재탄생한 실험적인 과정을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230-1420.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의 숨어있는 여행거리' 공모

교육문화공동체 '결'

아동·청소년 대상 대안교육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을 펼쳐오고 있는 교육문화공동체 결(대표 민문식)이 오는 17일까지 '광주민의 숨어있는 감성여행거리' 기획안을 공모한다.

응모작은 지역의 아름다움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광주민의 숨은 여행거리를 발굴, 도시여행이라는 콘텐츠로 재구성한 것이면 된다.

교육문화공동체 결 홈페이지(www.gyeol.org)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A4용지 2~3매 분량으로 작성해 우편접수(광주시 남구 월산동 70번지 3층)하거나 e메일(soosanghan@empal.com)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작은 오는 20일 발표할 예정이며, 1등 50만원을 비롯해 18명에게 총 200원의 상금이 주어진다. 문의 062-432-1318.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시립미술관장 합격자 없어

후보자 4명 모두 불합격… 국제적 감각 갖춘 전문가 찾기로

광주시가 차기 광주시립미술관장의 직급을 높여서라도 국제적 감각과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가를 찾기로 했다.

시는 9일 "시청 관계자 2명, 외부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

가 지난 8일 시립미술관장 공모에 참여한 4명에 대해 면접을 했으나 적합

한 후보자를 찾지 못해 모두 불합격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 "국립현대미술관처럼 광주시립 미술관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오는 12일 임기가 끝나는 현 박지택 관장을 당분간 유

임시키고, 올 말이나 내년 초께 차기 미술관장을 다시 뽑을 계획이다.

또 일반직 공무원 4급 대우를 받는 계약직 가급인 미술관장의 지위를 일반직 공무원 1~2급 대우로 올려서라도 유명 인사를 끌어들 방침이다.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있다면 과격적인 대우를 통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격에 맞는 유력인사를 선임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장은 2급 대우, 서울시립미술관장 3급이며 다른 자치체의 시립미술관장은 4급 대우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안중근의사의 생애 재조명

창극 '안중근' 앙코르 공연

오늘 문예회관 대극장

일제에 항거했던 안중근 의사의 삶을 그린 창극 '안중근'이 10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대극장에서 양코르 공연된다.

광주시립국극단(단장 송순섭)은 제41회 정기공연 작품으로 '창극 안중근'을 무대에 올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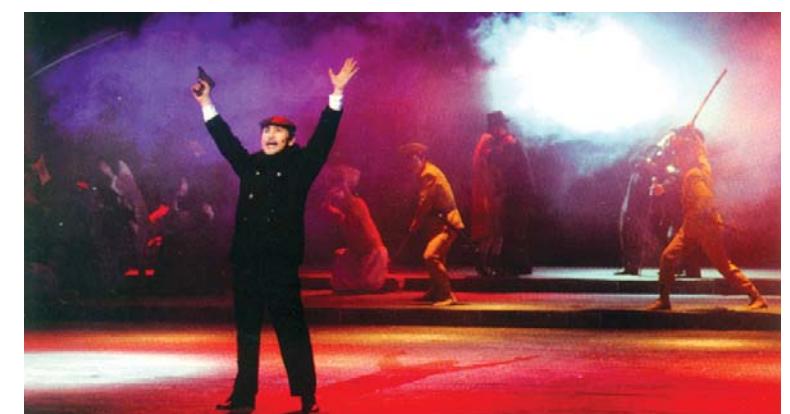
'창극 안중근'은 지난 5월 정기공연 때 선보였던 작품으로 서울, 부산

등에서도 공연돼 호평을 받았다.

1막에서는 안의사의 유년 시절과 하얼빈 거사 모습을 보여주며 2막에서는 의거 직후 뛰순 감옥과 법정에서 당당하게 일제에 맞선 안의사의 모습을 조명했다.

송단장이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최종민씨가 대본을 썼다. 또 김홍승·체향순씨가 연출과 안무자로 참여했다. 티켓 가격 1만원, 5000원. 문의 062-510-933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비발디의 '사계' 전곡 감상

광주시향 11일 문예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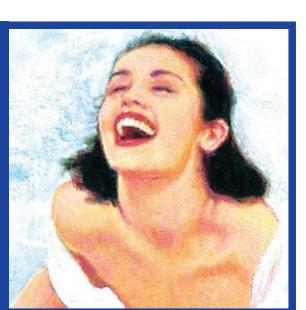
비발디의 대표작 '사계'를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11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에서 '사계' 전곡을 공연한다.

사람들에게 가장 친숙한 클래식 레퍼토리 중 하나인 '사계'는 '울드보이' 등 영화와 CF 등에도 삽입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왔다.

지휘는 임홍규 부지휘자가 맡았으며 협연자는 바이올리ニ스트 김경민이다. 빙 트리오 멤버와 양상을 포럼 21 음악감독으로 활동중인 김씨는 현재 한국콘서바토리 관현악과 교수

/임홍규
/김경민



**뮤지컬
MAMMA MIA!**
12월 3~5일 광주문화예회관
문의 062-220-0541·1588-0766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틀라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차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 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엔지 방수, 비단재 전문생산업체
**이엔지
미화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인생이 순탄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모든 길흉화복은 성명 삼자에 다 있습니다.

이름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

한사람의 감정료로 온가족의 이름을 감정해드립니다.

숙명(사주:년·월·일·시)은 바꿀수 없지만, **운명**(성명)은 바꿀수 있습니다.

1. 아무리 사주에 좋은 행운(幸運)과 복(福)이 들어있다 하여도 성명삼자(姓名三字)가 좋지 않을 때에는 필히, 불의의 재앙(災殃)과 악운(惡運)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2. 성명삼자로 부모, 형제, 배우자, 자녀의 길흉화복(吉凶禍福) 및 재물운(財物運)을 신기하게 알 수 있습니다.
3. 성명삼자로 일평생의 모든 운(運)이 좌우되오니 이번 기회에 감정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허가]

社團 法人 星谷 傳統文化 研究會 대표전화 227-2356
星谷 作名·鑑定 專門哲學院 010-7671-5623

위 치: 동구 계림동 마사회 진주가구 사거리 옆 성곡빌딩 1층